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고방안 특별대책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특별대책 소개 -

제 도 개 요

- 가입대상 : 노래연습장 등 22개 다중이용업소(191,387개소)
 - 보상범위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 손해
 - 보험금(가입한도액)
 - 대 인(사고당 무한) : 사망·후유장애-1인당 1억원, 부상-2천만원
 - 대 물 : 1사고당 1억원
 - 미가입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60일 미만 : 60만원,
90일 미만 : 90만원, 90일 초과 : 200만원
 - 가입시기
 - 신규업소 : '13. 2. 23부터 가입
 - 기존업소
 - 155,837개소 : '13.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PC방 등 5개업종*(35,541개소) : '15. 8. 22까지 가입
-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기 하기 위해 5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기간 : '13.7.4 ~ 8.22

이번 대책은 '13. 2. 23. 이전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50여일 앞둔 지난 6월말까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8월 22일 까지 가입하면 된다는 다중이용업주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23.2%)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추진하는 것이다.

[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로드맵

추진내용	7월					8월			
	1주 (1-6)	2주 (8-13)	3주 (15-20)	4주 (22-27)	5주 (29-31)	1주 (1-3)	2주 (5-10)	3주 (12-17)	4주 (19-23)
1단계(집중홍보 및 가입독려)									
○ TV 등 언론매체 집중홍보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								
○ 전광판 및 플랜카드 홍보 (소방서·보험회사)	■								
○ 시도 책임관 회의	■ (7.4)								
○ 직능 단체 간담회		■							
○ 손해보험사 관계자 간담회		■							
○ 화재배상책임보험 게시판 제작 및 운영	■								
○ 온라인(인터넷)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 6월까지 가입대상 정리 및 미가입자 가입 안내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 화재배상책임보험미가입자 확인 및 가입안내문 발송			■						
2단계(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별 대책반 구성·운영				■					
○ 업소별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					
○ 가입실적 분석 회의 실시 (주 단위 분석)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 스템 순회 교육						■			
3단계(8.25~9.6)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미가입 대상 현지 실사(미가입 대상 발생시)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단계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 까지 3주간에 걸쳐 ▲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 홍보 ▲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용 게시판 제작·운영 ▲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출시 ▲ 미가입 대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에서는 100% 가입달성을 위한 미가입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기간으로 만료일인 8월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팀) 구성·운영 ▲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 시도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보험 가입률을 100% 유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 등 사고예방기능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